

■ 고사성어 ⑩



능서불택필 (能書不擇筆)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 곧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데 종이나 붓 따위의 재료를 쓰는 도구를 가리는 사람이라면 서화의 달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 당나라는 중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의 하나였다.

당시 서예의 달인으로는 당초 사대가(唐初四大家)로 꼽혔던 우세남(虞世南)·저수량(褚遂良)·유공권(柳公權)·구양순(歐陽詢)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서성(書聖) 왕희지(王羲之)의 서체를 배워 독특하고 힘찬 술경체(率意體)를 이룬 구양순이 유명한다

그는 글씨를 쓸 때 붓이나 종이를 가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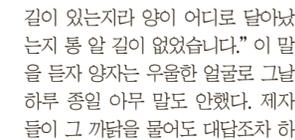
그러나 저수량은 붓이나 먹이 좋지 않으면 글씨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날, 그 저수량이 우세남에게 물었다. “내 글씨와 구양순의 글씨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낫소?” 우세남은 이렇게 대답했다. “구양순은 ‘붓이나 종이를 가리지 않으면서도[不擇筆紙]’ 마음대로 글씨를 쓸 수 있었다(能書)고 하오. 그러나 그대는 아무래도 구양순을 따르지 못할 것 같소” 이 말에는 저수량도 두 손을 들었다고 한다. 또 ‘능서불택필’은 ①<왕궁당필진(王肯堂筆



由江 權丞世

경복 영주생 김교공파 34세 -의력- 개인전4회, 초대그림전2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회 원장

麈)과 ②주현종(周顯宗)의 <논서(論書)>에 각각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속설은 구양순까지이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붓이나 종이를 문젯거리로 삼게되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통설이라고 할 수 없다. 행서(行書)와 초서(草書)를 제외한 해서(楷書)·전서(篆書)·예서(隸書)를 쓰는 경우는 붓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붓을 가리지 않을 수 없다.”



다기망양 (多岐亡羊)

다기망양 多岐亡羊 달아난 양을 찾는데 길이 여러 갈래로 갈려서 양을 잃었다는 뜻.

곧 ①학문의 길이 다방면으로 갈려 진리를 찾기 어려움의 비유. ②방침이 많아 갈 바를 모름.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주장했던 양자(楊子 :이름은 주(朱), B.C.395?-335?)와 관계되는 이야기이다. 어느 날 양자의 이웃집 양 한 마리가 달아났다.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은

물론 양자네 집 하인들까지 청해서 양을 찾아 나섰다. 하도 소란스러워서 양자가 물었다. “양 한 마리 찾는데 왜 그리 많은 사람이 나섰느냐?” 양자의 하인이 대답했다.

“예, 양이 달아난 그 쪽에는 갈림길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모두들 지쳐서 돌아왔다. “그래, 양은 찾았느냐?” 갈림길이 하도 많아서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습다. “그러면, 양을 못 찾았단 말이나?”에, 갈림길에 또 갈림

길이 있는지라 양이 어디로 달아났는지 통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양자는 우울한 얼굴로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했다. 제자들이 그 까닭을 물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한 현명한 제자가 선배를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스승인 양자가 침묵하는 까닭을 물었다. 그 선배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큰길에는 갈림길이 많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고 학자는 다방면으로 배우기 때문에 본성을 잃는다. 학문이란 원래 본은 하나인데 그 끝에 와서 이 같이 달라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인 근본으로 되돌아가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라네.”

冲齋先祖詠瓶梅詩 ①



玄岡 權錫祚

(사)한국서화예술인협회 초대작가 (사)대한민국 낙동예술협회 초대작가 " " 부이사장

一朶瓶梅用意裁 待看佳容笑談開 陽和自興天同泰 喜氣春風相遂來

한떨기 매화봄재 마음써서 가꾸었더니 마주한 아름다운 손님을 보고 방긋웃네 입춘이 지나서 모든 일이 하늘과 함께 잘풀려서 기쁜 기운이 봄바람과 서로 쫓아오는구나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④

가로수(街路樹)

■ 靑南 權寧漢 (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우리나라 가로수의 수종은 대부분이 속성수인 포플러 나무입니다.

지난 겨울, 부산에서 강릉까지 자동차 여행을 했을 때 느낀 일인데, 가로수의 겨울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잔인하게 잘라버려서 도저히 나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겨울은 방학 때이므로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시골을 왕래하는 기회가 잦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잔가지라고는 하나도 없이 몽땅 다 잘라버리고 살벌한 몸통이만 남은 도로가에 미루나무 가로수를 수십 리, 수백 리 가는 동안 계속 바라보며 과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좀더 정경계, 그리고 좀더 인정이 넘치게 다듬을 수도 있을텐데, 정말 안타

깝고 한심한 일입니다.

역사상 가로수를 누가 제일 먼저 심었는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2300여 년전, 인도의 아소카왕이 가로수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소카왕은 인도 마우라 왕조 제3대 왕이며 성질이 포악하여 집권 초년에는 많은 전쟁을 하였고 무수한 살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바리카를 정복했을 때는 포로 15만 명, 살육 10만 명, 무려 25만 명의 큰 살육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참혹한 광경을 보고 아소카왕은 크게 뉘우친 바가 있어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았으며 곧 불교에 귀의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우물을 파고, 여행자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집을 짓고, 병

원을 짓고, 도로마다 행인들이 쉬어 갈 수 있게 가로수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복인도 지방에는 아소카왕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석주(石柱)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Asoka의 석주’라고 하는데, 돌을 둥근 기둥 모양으로 만들었고 표면을 아름답게 다듬는 것으로써 높이 10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기둥 머리에는 사자, 소 등을 조각했고 그 밑에는 새, 짐승, 초화의 모뉴를 부조(浮彫)로써 장식하였다고 합니다.

이 석주는 언젠가 인도를 관광할 기회가 있을때 우리 모두 구경하기로 하고 다시 가로수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가로수의 중요한 기능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여름에 그늘을 만들어서 보행자나 차량이 길 가기가 편안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도로의 정연한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둘째, 도로 좌우에 규칙적으로 줄지어 서 있는 가로수의 모습은 질서와 위엄마저 있어서, 도로를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셋째, 시가지지를 아름답게 하고, 나무길의 풍치를 조성하며, 방풍, 방서, 공기정화, 온도 조절, 방진 등의 보건 위생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 역사기행

기묘사화(己卯士禍)이야기

■ 향촌 권오창 (본원 저문위원)

기묘사화는 1519년(중종 14년)에 일어난 조선초 4대 사회의 하나이다.

사화발생의 시발점은 1515년(중종 10년) 중종의 왕비책봉 과정에서 훈구세력과 신진사류세력간의 대립과 알력에 의하여 일어났다. 남근 심정 홍경주 등의 훈구세력이 의도적 모의에서 조광조 김정 김식 등의 신진사류 세력에게 화(禍)를 입힌 사건이다.

연산군때에 무오·갑자사화로 김중직 등 신진사류세력은 거의 약화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기강은 쇠퇴하여졌다. 중종은 이를 통감하고 정치개혁과정에서 신진사류를 등용하여 유교적 정치질서의 회복과 아울러 성리학을 크게 장려하게 하였다.

이때에 조광조 등 소장 도학자들이 등용되어 대의명분과 삼강오륜을 존중하는 유교적 정치이념으로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조광조는 1519년(중종 14년)에 38세의 나이로 대서헌이 되어서 낡은 정치를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정광필을 위시한 훈구 보수세력을 견제하고자 서로 대립하게 된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공신 76명을 재심사과정에서 공신호를 박탈하였다. 이에 반발이 기득권 세력에서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현량과를 신설하여 초야에 묻힌 유능한 학자들을 발탁하여 벼슬길에 나와서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훈구세력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그리고 종전부터 내려오던 미신적인 소격사를 폐지하고 민생문제에 바탕을 둔 향약제도를 권장하였으며 백성의 심신제도에 목적을 두고 「소학」학습을 전국적으로 보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왕에게 건의되어 그 관찰을 위하여 신진사류 세력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개혁정치 추세가 중종에게 호감을 던져주었으나 나중에는 사사건건이 중종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안겨 주었다.

그래서 조광조 등의 일파에 혐오감을 느낀 중종의 훈구파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역제등을 걸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중종왕비책봉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중종의 비 신(愼)씨가 역적 신수근의 딸이라는 공신들의 반대로 폐출되고 윤여필의 딸 중종의 후궁 숙의 윤(尹)씨를 1507년 왕비로 책봉하였으나 1515년 원자(인종)를 낳고 산후 7일만에 죽자 왕비책봉이 거론되었는데 훈구세력과 신진사류 세력간에 의견이 상충되었다.

훈구세력들은 폐출된 신(愼)씨 복위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순창군수 김정과 담양부사 박상을 시켜 신씨 복위가 타당하

다는 이유를 들어 상소하였다.

한편 중종도 급술이 좋던 신씨가 폐출되었으나 은근히 복위되기를 염원하고 있었다고 한다. 중종은 사가로 폐출된 신씨가 그리워서 높은 누각에 올라 신씨의 사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한다. 이 소문을 들은 신씨는 사가의 뒷편 인왕산 바위에 붉은 치마를 둘러놓고 왕을 애타게 그리워하였다고 한다.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71세를 일기로 1557년(명종 12년) 12월에 별세하여 아버지 신수근의 묘 옆에 묻혔다.

인왕산 기슭에는 지금도 치마를 낀었던 바위는 「치마바위」라는 전설을 남긴채 등산객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반면 조광조 등은 이를 유교적 논리를 세워 신씨 복위를 완강히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서헌이었던 권달수(權達手)공이 폐출된 신씨 복위가 불가함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새 왕비를 뽑아야한다고 왕에게 의견을 올렸다. 조광조도 직접 상소를 올려 적자원칙을 주장하여 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 왕비를 책봉하여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조광조 등의 반대세력인 남근과 심정은 공신록에서 삭제된 희빈 홍씨의 아버지 홍경주와 합세하여 모사를 꾸렸다. 새 왕비를 뽑는 경우 현재 경빈 박씨와 희빈 홍씨에게 그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아들이 원자(인종)을 제치고 세자로 책봉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차체에 이들의 계비승계의 야심을 가졌다.

그래서 왕비 책립의 여론은 혼선을 빚고 왕의 내심은 반란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홍경주는 궁녀를 시켜 궁궐 후원에 있는 나무앞에 주조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씨를 풀물로 써서 별래들이 풀물이 풀은 글자를 갇아먹어 글씨가 나오도록 하였다.

이는 조(趙)씨가 왕이된다는 의미라 희빈 홍씨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나 나무잎을 따다가 중종에게 바쳤다. 이로 인하여 나중에 조광조 등 신진사류세력은 몰리게 된다.

이때에 기회포착을 적시에 잡은 사람

독립운동과 권오설의 등장 ④

<지난호에 이어>

신문에는폐병肺病과 뇌병腦病이라 보도되었다. 동지들이 그를 안국동 1번지에 유숙시키고 진료를 받게 하였지만, “병세 가 이미 기울어 위급하므로” 5월 17일 고향으로 보냈다. 5월 19일 고향집에 도착한 그는 6월 3일 오전 7시 29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고문 후유증에다가 차츰한 옥고가 가져온 결과였으니, 이는 장렬한 순국이 아닐 수 없다. 서울에서는 6월 8일 수표정水標丁 42번지에 있던 조선교육협회에서 인광회隣光會 주최로 추도식이 열렸다. 권오운은 권동호權東浩의 아들이다. 동호는 수곡중손 권준희의 아들이지만 남천택으로 양자 들었다. 그도 역시 가일 8부자 권역에 속한 인물이었다. 중앙고보를 다니던 권오운의 집(남천고택)도 세가 아주 좋았는데, 바로 그 집 마당 곁에 권오설 집이 붙어 있었다.

그는 6·10만세운동 직후에 일경에 붙잡혀 고생하였다. 풀려난 그는 이듬해 신간회 안동지회에 참가하였다. 1927년 2월 15일 서울에서 신간회가 결성되고, 그 해 8월 26일 안동지회가 조직되었다. 보광학교 대강당에서열린 총회에서 류인식이 회장, 정현모가 부회장에 뽑히고, 간사 24명이 선출되었다. 권오운은 권태석·이운호·안상길 등과 더불어 간사로 뽑혔다. 신간회 안동지회는 출발할 때 197인으로 시작했으나, 곧 7백명이 넘어, 전국에서 평양지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지회가 되었다. 그런 속에 권오운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신간회와 같은 시기에 안동 청년동맹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7년 안동청년동맹 풍산지부 상무위원으로 활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권오운은 머지않아 세상을 떠났다.

감옥에서 나온 뒤로 몸이 좋지 않았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던 그였다. 그러다가 1927년 12월 23일 24세 젊은 나



이 있었다. 흥문관 직제학 자리에 있던 김안로가 상소를 올렸다. 왕은 김안로를 직접 불러서 상소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안로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조금 침묵을 지키다가 왕에게 아뢰기를 “투타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 이를 속칭 양시론(兩是論)이라한다. 그러하오니 “양측 모두를 인사이동시켜 놓으면 다툼이 없어 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중종은 김안로의 말을 참고하여 박상은 남원으로 김정은 보은으로 유배 보냈다. 그리고 당시 대서헌 권달수(權達論)공을 해임시키고 이장근을 대사헌, 김안로를 대사간에 임명하고 정관조에게는 직제학을 명했다.

후에 김안로는 윤임과 결탁하여 장경왕후의 딸 효혜공주와 그의 이들과 국혼을 하여 대세력가가 되었으며 이조파서의 자리에 올랐다. 더욱이 후일 윤지임의 딸이 문정왕후가 되게끔 하였다.

그리고 조광조는 삭발당되고 능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영의정 정광필이 나서서 조광조를 변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계속하여 조광조를 유배에서 풀어달라는 성균관동 공평관에서 유생들의 시위와 조광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가세하였다. 그러나 유생들의 시위를 해결한 이튿날에 중종은 조광조에게 사사명을 내렸다.

끝내 조광조는 개혁정치 왕도정치 꿈을 꺾지 못하고 시약을 받고 만다.

시약을 마시기전 시(詩)한수를 읊었다. 「임금사랑하길 아버지 사랑하듯 나라 근심하길 집안근심하듯 흰 해가 밝게 이 땅에 내리쬐어 붉은 충정을 뚜렷하게 비추리라」

이즈음에 70여명이 시약을 받고 죽었는데 이를 기묘사화라 한다. 이때에 죽은 사람들은 기묘명현이다.

기묘사화는 신진사류 세력과 훈구세력간의 반목과 배격에서 일어났고 조광조 등의 급진 과도한 왕도정치 실현의 이상 이 성숙도가 미치지 못하여 당시 사회변동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정치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병사한 것이다.

서울에서 권오설을 따르던 집안 동생 두 사람, 권오상과 권오운이 저 세상으로 떠난 뒤 권오설마저 1930년대 옥사했다. 가일마을은 3년 사이에 세 사람의 주역들을 잃었으니, 기가 막힌 날들이 아닐 수 없었다. 1920년대 초기에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에 나선 인물로 권영식權寧植이 보인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1910년대 후반 권준희·권준홍 등과 더불어 광복회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재판 받는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인물이다.

권오權五憲의 움직임이 신간회와 안동청년동맹 풍산지부에서 드러난다. 그는 1928년 5월 13일 열린 신간회 안동지회 제6회 간사회에서 수곡위원 1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혀 활약했다.

연년공捐年金. 곧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그러다가 1929년 8월, 그는 ‘불은촉문’ 사건으로 구속되어 곤욕을 치렀다. 그의 직업은 잡화상이고, 본적은 가곡동 614호였다. 당시 주소는 422번지였다. 1929년 8월 10일에 열린 신간회 안동지회 임시대회를 앞두고, 그는 문경군 마성면 외어리外師里 이병상李丙祥의 집에서 임시대회에 보내는 ‘촉하문’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이 “압제와 박해를 해쳐 나갈 투사가 필요하며, 필사적인 자세로 싸울 작전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을 임시대회에 보냈는데, 일제는 촉하문이 대단히 선동적인 불문문서라는 이유를 내걸고 그를 구속하였다. 안동경찰서에 이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검사국으로 옮겨져 예심감방에서 고생하던 끝에, 10월 31일 그는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권오설을 따른 가일청년에는 누군보다도 그의 친동생 권오직이 두드러진다. 권오직은 모스크바에서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하여 1929년 3월에 졸업했다.

<다음호에 계속>